

## 제11장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교회설립을 위한 외적인 준비를 마친 동석기 선교사는 내적인 준비로 교인들을 얻기 위해 그동안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해온 자들을 중심으로 조선 최초의 침례식을 계획하였다. 그 계획에 따라 그는 1930년 11월 29일(토)이 되자 마을 주변에 있는 강에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침례식을 집행(執禮)하였다. 이 침례식에서 침례를 받은 자는 20명으로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었다. 그들은 장로교회에서 환원한 7명을 비롯하여 감리교회에서 환원한 동석기 부인, 그리고 동석기가 전도한 새 신자 12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8.] 그 당시의 감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해지고 있으며, 동석기는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성령의 은혜로 북청에 곧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루어져 11월 말에는 약 20명에게 구원의 침례를 주게 되었다. 함경도의 11월 말은 이미 겨울이었다. 침례지원자들은 단단하게 얼어버린 개울을 깨치고 차디찬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아야 했지만, 그들을 감싸는 성

령의 열기는 오히려 뜨겁기만 했다.” [『요셉처럼 살다간 동석기 전도자』]

“강독에서 침례식이 열린 것은 이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침례식을 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어떻게 얼음으로 덮인 물에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병에 걸려서 틀림없이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아프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고 행복했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8.~279.]



북청 지역 교회의 예배당과 신자들

동석기 선교사는 침례식 후에 주의만찬을 기념하기 위해 침례 받은 20명의 그리스도인과 함께 그동안 성경 공부를 해왔던 함전교회 예배당(집회소)으로 장소

를 옮겼다. 이때 그는 조선 최초로 그리스도의 교회의 ‘주의만찬 예배’를 인도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먼저 말씀을 강론하였고, 다음으로 주의만찬을 인도하였는데 침례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셨다. 이어 그리스도의 교회의 최초 회중 총회를 열어서 집사(남성) 3명, 회계 담당자 1명, 주일학교(主日學校) 교사 4명, ‘자매 반 교사 1명(여성)’ 등을 임원으로 임명하므로 조직교회로서의 첫 출발을 하였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9.]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설립된 교회를 동석기 전도자는 조선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인 ‘함전교회’(咸田 基督の教會)라고 명명(命名)하였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를 시작한 시기는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최초로 소개한 시기는 언제일까? 그 시기는 바로 동석기 전도자가 조선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라는 신분으로 그의 고향 북청에 도착한 1930년 11월 8일(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우리나라에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 설립되었을까? 동석기 선교사는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교회가 설립되면 사용할 예배당을 준비하고, 그 예배당을 집회소로 삼아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다. ‘이 성경 공부 모임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질

문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교회는 침례 받은 교인들 두세 사람 이상의 회중이 모이고 그들이 주의만찬을 기념할 때 교회라고 인정한다. 그런데 당시 동석기 선교사 혼자 침례를 받은 상태이기에 교회로 집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그래서 동석기 선교사는 교회설립을 목적으로 먼저 집회소를 준비하고 그곳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성경 공부 참석자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성경 공부 참석자를 중심으로 20명에게 침례를 주었고, 침례 받은 20명과 함께 첫 주의만찬 예배를 드리므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설립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시기는 최초 침례식이 있었던 날, 최초 주의만찬을 기념한 날인 1930년 11월 29일(토)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동석기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것은 신약성서의 기초 위에 조선에 최초의 그리스도 교회를 세운 첫 번째 행사였다. 비록 한양에는 일본의 커닝햄에 의해 설립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지만, 조선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는 1930년 11월 29일에 설립되었다.”

셋째, 동석기 선교사는 침례식 후 즉시 주의만찬을

기념하므로 토요일에 교회설립이 되도록 하였을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전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중학교 때부터 보아왔지만, 침례식이 어떤 요일에 있던지 침례식이 끝나면 반드시 예배당에서 침례 받은 자만 주의만찬을 기념하도록 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필자가 목회하면서 그 전통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전통 때문에 토요일에 침례식이 있었기에 주의만찬을 기념했던 것이고, 그 주의만찬 기념이 교회 설립 즉 교회로서의 첫 예배가 되었다고 여겨진다.

여기서 필자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최초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일이 1930년 11월 29일(토)로 유대교(Judaism)가 성일로 지키는 안식일인 ‘토요일’로 잡혔을까? 더구나 주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주일날 모이는 목적이 주의만찬을 기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안식일에 모여 주의만찬 예배를 드렸는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앞서 설명한 전통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침례식은 토요일에 했더라도 주의만찬은 하루를 넘겨 주일에 최초 예배를 드리면서 기념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한, 동석기 전도자는 함경남도 북청군 덕성면 성흥리에 두 번째로 설립한 서흥 그리스도의 교회의 설립 과정을 소개하면서 설립 일에 관하여 혼선을 주면서 잘 못 밝히고 있는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맥칼렘(McCaleb)[History of the Restoration Movement]

“두 번째 그리스도의 교회는 일본 도쿄에 있는 맥칼렘 형제가 나를 찾아와서 우리 주님의 일을 도운 1931년 5월 22일(금) 설립되었다. 맥칼렘 형제와 나는 새로운 장소 중 한 곳으로 가서 31명의 조선인에게 강독에서 침례를 주었다(6명의 여성과 25명의 남자)……. 그들 중 한 명은 거기서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사는 나의 조카였다. 나는 토요일에 그곳에 가서 그에게 구원과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죄 사함을 받는 침례를 받기 위해 왔다.” [S. K. Dong, The Harvest Field. 279.]

동석기 전도자는 서흥교회 설립은 31명이 침례를 받은 날인 5월 22일(금)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바로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는 세례받은 31명 중에는 동석기의 조카가 있다고 했는데, 동석기는 그를 토요일인 5월 23일에 찾아가서 구원 문제를 설명했다고 했다. 둘째는 조카가 침례 받으러 온 날이 토요일 다음 날이라고 하였는데, 토요일 다음 날은 주일이며 그날은 5월 22일이 아닌 '5월 24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서흥교회는 1931년 5월 24일(주일)에 설립되었다. 그런데 왜? 동석기는 5월 22일(금)이라고 했을까? 이렇게 시기, 날짜 등을 가끔 사실과 다르게 말한 것을 그의 영문 편지에서 발견되고 있어서 아쉽다.

동석기 전도자는 함전교회를 설립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증거들을 보여주는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라고 묻는 말에 대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10가지 특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힌 것이다.

“(1) It has immersed Christians only.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의 공동체] (2) It has elders and deacons as in the New Testament.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대로 형제 중에서 장로들(복수)]

과 집사들(복수)을 임원으로 세우는 공동체] (3) It has communion service every Lord's Day. [주일마다 주의만찬 예배를 드리는(주의만찬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행하는) 공동체] (4) It has preaching service every Lord's Day. [주일마다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공동체] (5) It has Bible study every Lord's Day. [주일마다 성서를 공부하는 공동체] (6) It has no instrumental music. [인간이 만든 기계인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무악기, 무반주) 예배드리는 공동체] (7) It has no infant baptism. [유아들이 받는 세례를 반대하는 공동체(유아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 공동체)] (8) It has not organization. [개 교회를 구속하는 조직이 없는 공동체(개 교회를 간섭하는 상회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9) It has no sprinkling. [약식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세례는 오직 침례만을 인정하는 공동체)] (10) It has no man-made rules. [사람들이 만든 교리, 신조, 그리고 규범이 없는 공동체('교리, 신조, 그리고 규범'을 만들어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공동체)"]

동석기 전도자가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정리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10가지 특징에 대하여 교파형 교회와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hurch of Christ Directory Nigeria

“① 세례는 약식세례(abbreviated baptism, 병상 세례)와 유아세례(infant baptism)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구원의 침수 세례(침례)만을 인정하고 베풀다.

② 교회의 임원 혹은 제직(諸職)인 신자들의 직분(職分)은 남자 신자 중에서 집사(執事)와 장로(長老)만을 안수하여 세운다. 그리고 여자 신자들에게는 집사, 장로, 권사(勸士)의 직분을 임명하지 않는다.

③ 주일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주의만찬을 기념한다. 그래서 주일예배를 ‘주일 낮 예배’라고 사용하는 것 보다는 ‘주일 주의만찬 예배’라는 타이틀(title)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예배를 드린다. 즉 ‘무악기 예배(no instrument worship)’ 혹은 ‘무

반주 예배(an unaccompanied worship)’ 또는 아카펠라 예배(a cappella worship))를 드린다.

⑤ 개 교회를 구속하는 상회 개념의 조직이나 인위적인 교리, 신조 등을 반대한다. 그러므로 당회, 총회, 그리고 노회, 같은 조직이 없으며, 교리, 신조 등을 만들어 구분하는 것을 반대한다.’ 등이다.”

여기서 동석기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의 호칭 문제에 관해서 왜? 침묵하였을까?’ 다시 말해서 동석기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들의 호칭이 ‘전도자’인지? 아니면 ‘목사’인지?’에 대하여 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든다. 왜냐하면, 선교 9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목회자들의 호칭 문제에 관하여 완전한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전도자’ 호칭을 사용하는 목회자들과 ‘목사’ 호칭을 사용하는 목회자들 간에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동석기 선교사를 ‘전도자’로 호칭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기록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동석기 선교사의 호칭에 대하여 발표한 논문의 내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당시 신문에 보도된 기사마저도 감리교회 목사 시절 알

려진 목사 호칭 외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전도자로 소개되지 않고 있기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아쉬움도 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그를 알고 있는 자들과 신문 보도는 동석기 선교사를 감리교회에서 사용해 왔기에 ‘목사’로 부르거나 표기하고 있는 기록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전 한국신학대학(현 한신대학교) 학장을 지낸 조향록[趙香祿, 1920.8.3.~2010.4.11.] 목사는 ‘동석기 목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본래 나는 동석기 목사가 설립한 교회당을 눈에 익도록 보고 자랐다. 동석기 목사는 개화운동에 참여하였고 미국에서 신학을 수학하였으며, 경기도 지방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쫓겨 고향인 함경도 북청군이곡면 동 씨 촌에서 목회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였다.” [『중단할 수 없는 신학교육』, 2010.3.18.]